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의 이주사

DOI <https://doi.org/10.30525/978-9934-26-496-2-12>

남빅토르,
교육학 박사, 교수, 총장,
타슈켄트 부천대학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Email: namviktor75@gmail.com

국문초록: 고려인들의 삶은 이주와 개척이라는 숙명적 역사로 점철되어 왔다. 고려인들의 이러한 숙명의 역사는 1860년대 초에 조선 북부에서 두만강을 넘어 러시아 연해주로의 이주를 시작으로 1937년에는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였다. 강제이주 사건 이후 대다수 소련 고려인들의 생활거주지는 더 이상 극동 지역이 아니라 중앙아시아(특히 카자흐 공화국과 우즈베크 공화국) 지역으로 되었다. 중앙아시아 이주 한인들은 공화국 간 자유로운 이주도 제한받는 사실상의 특별이주민으로 취급받았다. 더구나 이 시기에 일본은 한반도와 만주를 지배하고 나아가 중국 본토를 침략함으로써 소련 당국을 안보적으로 긴장시켰다. 러시아 혁명 직후의 내전기에 일본군은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을 일시적으로 점령한 바 있었기 때문에 소련의 안보적 긴장감은 극에 달하였다. 따라서 일본인과 외모가 유사한 고려인들은 소련 내에서 경계대상 소수민족으로 취급당했던 것이다.

중앙아시아에 이주한 이후, 조선인사회는 1940년대까지 교사, 교과서, 서적 등이 존재하고 있어 민족문화의 명맥이 유지될 수 있었으나, 1950년대 초에 지식인, 교육자들이 사할린, 연해주, 북한 등지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차출됨으로써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지역이 독립하였고, 강제 이주되어서 80년 이상 살아온 터전에서 고려인들은 인정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교육은 과거 강제 이주 당한 고려인을 대상으로 우즈베키스탄 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반을 개설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고려인뿐만 아니라, 현지인 우즈베크인들도 한국과 한국어문화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높은 편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뿐만 아니라, 사마르칸트, 부하라, 우르겐치 등 지방까지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제어: 우크제키스탄, 한인 디아스포라, 강제 이주, 교육, 고려인, 한국어교육

THE HISTORY OF KOREAN MIGRATION TO UZBEKISTAN

DOI <https://doi.org/10.30525/978-9934-26-496-2-12>

Nam Viktor,

*Doctor of Philosophy (P H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Rector of Bucheon University in Tashkent (BUT), Uzbekistan, Tashkent.
email: namviktor75@gmail.com*

Annotation.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issue of mass deportation of the Korean people to the territory of Uzbekistan, as well as the peculiarities of the refraction of Korean culture in contact with other traditions. The work traces the long journey of Korean immigrants from their first appearance in Central Asia and their adaptation after being deporte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termine the main stages in the formation of the Korean diaspora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Along with methods of description and systematization, a historical-typological approach was actively used, which made it possible to recreate the process of resettlement and spread of Koreans over the Republic of Uzbekistan.*

It was found out that the first settlers from the Korean Peninsula fled to the Far East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After simplifying the migration process, it led to the formation of new Korean settlements and areas in the Far Eastern region. Subsequently, the path of Korean immigrants turned out to be difficult, due to mass deportation in 1937.

After being deported to Uzbekistan, Korean immigrants paid attention to education and opened Korean schools. This became possible due to the fact that the deportation was carried out in compact villages, that is, teachers and students from certain villages arrived together. Certain educational literature was also exported

Despite all the trials, the representatives of the Korean diaspora not only adapted to new living conditions, but also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Uzbekistan.

Keywords: *Koreans, history of resettlement, Korean diaspora, Uzbekistan, national identity, the Korean language.*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의 이주사

본 연구는 근세 한민족 수난사중 연해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의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강제이주 과정과 현지적응 상황 및 그리고 CIS로 독립한 이후,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그들의 적응과 도전의 과정에서 유랑의 길을 걷거나 재이주 및 피난을 떠나는 중앙아시아 한민족(고려인)의 생존과정을 추적하고 대한민국의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일제의 강제 점령 직후에 조선의 많은 주민들이 두만강을 건너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하게 되었다. 특히, 연해주 지역에 많은 지식인들이 정착하게 되었고,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었으며, 1919년 3.1운동과 같은 조선 내부의 격변 속에서 이주민의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1926년에는 소련 극동 남부지역의 조선인 인구는 16만 7400 명이 되었고, 돌아갈 조국이 없게 된 이주민들은 사회주의 이념을 받아들이며 소련에 귀화한 숫자가 약 3만 명에 이르렀다. 당시 스탈린정부는 조선인들의 인구증가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극동지방에서부터 중앙아시아로 1937년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3만6442 가구 총 17만1781 명을 강제이주 시켰다. 이주 과정에서 1만1천 명이 사망하였다. 중앙아시아에 이주한 이후, 조선인사회는 1940년대까지 교사, 교과서, 서적 등이 존재하고 있어 민족문화의 명맥이 유지될 수 있었으나, 1950년대 초에 지식인, 교육자들이 사할린, 연해주, 북한 등지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차출됨으로써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이후, 러시아 국민으로써 한민족들은 민족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전반적 여건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민족 정체성 강화 대신에 자발적으로 러시아 동화교육 수용을 선택하였지만 소비에트 역사는 붕괴하였다.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지역이 독립하였고, 강제 이주되어서 80년 이상 살아온 터전에서 고려인들은 인정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교육은 과거 강제 이주 당한 고려인을 대상으로 우즈베키스탄 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반을 개설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고려인뿐만 아니라, 현지인 우즈베크인들도 한국과 한국어문화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높은 편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뿐만 아니라, 사마르칸트, 부하라, 우르겐치 등 지방까지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초·중등학교, 대학교 등에는 1만 명이 넘는 우즈베크 학생들이 한국어를 정규과목으로 배우고 있으며, 비정규 교육기관인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의 한국어강좌 수강생과 한글학교 학생들까지를 포함하면 전체 약 2만 명의 우즈베크 학생들이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다.

주제어 :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강제 이주, 정착 과정, 민족적 정체성.

1. 한인들 연해주로 이주 시작

1) 연해주로 1차 대규모 한인 이주의 시작

1869년 가을 조선 이북지방에서 큰 흉수가 난 데 이어 강한 서리가 내려 수확을 모두 망쳐놓는 일이 발생하자 대기근에 쫓긴 한인들은 대거 러시아 땅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대대적인 규모로 남우수리 지방으로 몰려 들었습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겨울옷과 월동양식도 챙기지 않은 한인 1,850명(남자 1,300명과 여자 550명)이 여러 경로를 통해 지신허에 도착 했습니다.

처음에 소규모로 이루어진 월경은 1869년 11월 말~12월 초에 이르러 한 꺼번에 4,500명이 국경을 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1869년 한 해에만 두만강을 넘어 러시아 영토로 이주한 한인 수는 6,543명으로 그중 1/3이 아이들이었습니다. 월경 한인 중 300~400가구는 그나마 가축과 비축식량을 갖고 있었으나 나머지 700여 가구는 맨손으로 월경한 자들이었습니다.

1890년대 후반기 한인 이주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이 커진 것은 한편으로는 조선-러시아 간의 1884년 국교수립,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로의 한인 이주가 계속되는 조건하에서 연해주 지역과 연흥룡 지방의 한인 식민 화를 합법화하고 법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점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조수호통상조약' 체결 협상이 진행 중이던 1886~1888년 러시아 측은 수차례에 걸쳐 자국 땅에 정착한 한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1885년 러시아 외무성은 K. I. 베베르 서울주재 러시아 대리공사에게 조선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1884년 국교수립 이전에 러시아로 이주한 모든 한인들에게 러시아 국적을 부여하고 그들이 러시아뿐 아니라 조선에서도 러시아 국민이 갖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를 조선 정부로부터 얻어내라는 지침을 하달 하였습니다.

2) 러일전쟁 이후 한인의 2차 러시아 이주

1904~1905년 러일전쟁과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 만주와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이주하는 한인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10년 한일합방 이후 고향을 버리고 러시아에서 새로운 조국을 찾으려는 한인들의 이주는 더 광범위한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주의 주된 원인은 일본 자본가와 지주들의 토지 공탈과 일본 농민들의 대대적인 대한제국 이주와 관련된 경제적 요인이 컸습니다. 대한제국이 자주권을 상실한 때부터 이주는 뚜렷하게 정치적 성향을 띠기 시작하

였습니다. 이주민 중에는 항일민족해방운동 참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 침략자들이 시행한 잔혹한 군사경찰 공포정치 결과로 이들은 조국을 떠나 러시아 영토로 자신의 활동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운동의 규모는 광범위했습니다. 1907년 폐위된 대한제국 황제 고종 자신이 러시아로 도주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표 1〉 연해주 이주한인의 국적 취득 현황

연도	러시아 국적 취득 한인			러시아 국적 미취득 한인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1906	9,675	7,290	16,965	11,960	6,054	18,014
1907	9,052	6,955	16,007	20,465	9,442	29,907
1908	8,825	7,265	16,090	20,486	8,821	29,307
1909	7,894	6,905	14,799	25,210	11,545	36,755
1910	9,403	7,677	17,080	22,132	14,753	36,885

1906~1910년 연해주 이주 한인 수만 해도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3만

4,399명에서 5만 96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용된 자료의 수치는 공식등 록된 한인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07년 연흥룡 지방 총독의 지시로 남우수리 지방 한인 주민에 대한 인구조사를 실시한 A. M. 카자리노 프 특무관의 통계를 보면 연해주의 미등록 한인 수는 등록 한인 수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농업개혁 실시기간인 1906~1917년 극동으로의 러시아인 이주민은 총

25만 9,470명으로 그중 연해주로 16만 7,547명(64.57%), 아무르주로 9만

1,923명(35.43%)이 이주하였습니다. 이 시기 극동으로는 농민 외에도 비농민의 유입이 증가했습니다. 1906~1916년 도시, 금광, 철도 건설장으로 2만 3,008명이 이주했습니다. 그 결과 1917년 연해주의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 수는 이미 74만 8,300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한인 주민 수는 10만 명 정도였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러시아로의 한인 이주민 수는 다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1911년 1월 1일~9월 1일에만 블라디보스토크에 한인 노동자 2,253명이 도착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영구정착을 위해 연흥룡 지방에 찾아드는 한인 수도 증가했습니다.

2. 소비에트 러시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인들

1917년 러시아 내 한인 수는 10만에 달했습니다. 연해주에만 8만 1,825 명(러시아 국적 보유자 3만 2,841명과 미보유자 4만 8,984명 포함)이 거주했으며, 이는 연해주 전체의 30%에 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내전 및 외국 열강 군대 간섭기 중 러시아 유럽지역에 7천여 명, 서부 시베리아에 5 천여 명의 한인이 있었습니다. 한인 노동자들이 러시아의 유럽지역 내 18 개 도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내전과 외국 열강 군대 간섭기 중 한인들의 극동공화국 유입은 더욱 늘었습니다. 1923년도 농촌 및 도시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 지방 한인들의 총 숫자는 11만 280명이었고 연해주 한인 숫자는 10만 6,409명이었으며 그중 9만 4,082명이 마을과 촌에 살았습니다.

1923년 인구조사 결과는 결코 정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료들은 실제 숫자와 25~30% 차이가 있거나, 한인들은 상호교류에 용이한 교통로 가 없는 외곽지역에 산재하여 거주했기 때문에 정확히 집계되거나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신뢰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다. 극동혁명위원회의 한인문제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23년 연해주에는 12만 982명의 한인이 거주했고, 그중 10만 3,482명이 농촌에 그리고 1만 7,500명이 도시에 거주 했습니다.

그 후 극동공화국 한인 수는 증가했습니다. '극동혁명위원회 1925년도 보고서' 는 지역 한인 수를 13만 명으로, 그중 러시아 국적 한인은 6만~7만 명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1926년 한인 숫자는 이미 17만 명에 달했습니다.

1930년대 중반은 이미 그 숫자가 20만 명에 달했던 재소 한인들의 역사 에 있어 경제개혁 분야에서 성과를 낸 기념될 만한 시기입니다. 한인 노동 자들의 문화적 발전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1936년 지방 이민교육 부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287개와 준중등학교 53개 및 중등학교 4개(총 344개)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총 1만 9,255명, 준중등학교 5,497명 그리고 중등학교 261명의 학생(총 2만 5,043명)이 있었습니다. 한인학교 비중은 극동공화국 전체 숫자의 12.5%였습니다. 극동지역 민족학교 가운데 한인 학교가 인원수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극동공화국에는 세계 유일의 한인 사범대학이 있었고, 2개의 교육전문 학교, 1개의 농업기술학교, 지방 한인 소비에트 당원 학교, 고등 공산주의 농업학교 조선어과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교육기관은 당시 2천만 인구를 가진 일제 식민지 치하의 조선에도 없었습니다.

3.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1937년 8월 21일 소련 인민위원회의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극동 변경지역 한인들의 이주 결정에 따라 1937년 9월 연해주 러시아 연흥룡강 지방에 살고 있던 약 18만 명의 한인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되었습니다. 강제이주의 공식적 이유는 '극동지방에 일본 정보원 등이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1930년대 들어 일본의 침략적 정책으로 극동사태가 더욱 악화되자 소련은 연해주 안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연해주에서는 소련을 향한 일본의 첩보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한국말 이외에도 러시아말, 일본 말, 그리고 중국말을 잘하는 연해주 한인들이 이러한 목적에 쉽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게 소련의 판단이었습니다.

소련 인민위원회의와 전소련공산당 최고회의에 의해 1937년 '극동지방 국경지역으로부터의 한인 이주에 대한 결의안' 제 1428~326 (1급 비밀)호가 채택되었고, 이 문건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소련 인민위원회의와 전소련공산당 최고회의'는 극동지방의 일본 스파이 활동 침투차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1. 극동지방 전소련공산당과 극동지방 집행위원회, 극동지방 내무인민위원 부에 다음의 극동지방 국경지역에서 모든 한인을 이주시킬 것을 권고.

2. 대상지역 : 포시에트, 몰로토프, 한카이, 호홀리스크, 체르니고프, 스파스크, 슈마코프, 포스티쉬프, 비킨스크, 바쨌스크, 하바로프스크, 수이푼, 키로프, 카 리닌, 라조, 스바보드넨, 블라고베센스크, 탐보프스크, 미하일로프스크, 아르하 린스크, 스탈린스크, 블루헤로프스크 지구에서 남부 카자흐스탄주의 아랄해 지역과 발하샤 지구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소비에트 공화국으로 이주시킬 것. 이주작업은 포시에트 지구와 그로데코보 지구 인근부터 개시할 것.

3. 이주작업은 즉각 개시하며 1938년 1월 1일까지 종료할 것.

4. 이주대상 한인들에게 이주 시 재산과 가재도구 그리고 가금류를 가져가도록 허락할 것.

5. 이주민들에 의해 남겨지는 동산, 부동산 그리고 농지에 대해 보상할 것.

6. 한인들이 출국을 희망할 경우 간소한 국경통과 절차를 적용하여 이주대상 한인들의 출구에 장애를 주지 말 것.

7. 소련 내무인민위원부는 이주와 관련, 발생 가능한 한인들의 난동 및 폭동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

8. 카자흐스탄소비에트공화국과 우즈베키스탄소비에트공화국의 인민위원 회의에 조속히 이주지역 및 위치를 정하게 하고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여 새로운 지역에서의 이주민들의 농업활동을 보장해줄 수 있는 조치를 결정토록 할 것.

9. 인민교통위원회는 극동지방 집행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이주 한인 및 그들의 재산을 극동지방에서 카자흐스탄공화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으로 운

10. 송할 열차를 제때 보장할 것.

11. 전소련공산당 극동지방위원회와 극동지방 집행위원회에 3일 안에 이주 대상 가구 및 인원수를 보고토록 할 것.

12. 이주 진행상황, 이주지역으로부터의 출발 숫자, 정착지역 도착 숫자, 해 외로 출국이 허락된 인원수를 10일 단위로 전문보고할 것.

13. 한인 이주지역의 국경 경비 강화를 위해 국경수비대 수를 3천 명으로 증 원할 것.

14. 소련 내무인민위원부의 한인들에 의해 비워지는 공간에 국경수비대원 의 입주를 허락할 것.

4.소련 인민위원회의 의장 몰로토프 전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스탈린

1937년 9월 10일 한인 이주민 초기그룹이 떠나갔습니다. 얼마 뒤 소련 내무부 장관인 예조프는 작전과정에 대해 보고하면서 1937년 9월 21일 극 동공화국으로부터의 이주 현황을 “카자흐스탄공화국 2만 1,299명, 우즈베 키스탄공화국 3만 3명, 총 5만 1,302명(1만 369 가구) 이주” 로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언급된 지역으로의 5,400가구(2만 4,000명)와 극동지방 국경 지대에 남아 있던 한인 2만 5천~3만 명의 차후 후송계획에 대한 내용도 포 함되어 있습니다. 강제이주를 주관한 기관들의 의견은 “스파이들의 첩보 망 활성화를 차단하기 위해 남은 한인들을 모두 이주시킬 것” 으로 같았습니다.

강제이주 대상이 된 한인들은 공산주의자, 콤소몰 조직원, 한인 교장을 포함한 소비에트 공립학교 교사, 보안기관 요원, 내전 시 소비에트 정권을 위해 참전한 빨치산 출신 인사, 대학생, 전문대 학생 등이었습니다.

1937년 10월 18일 사할린주 한인들은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야 했습니다. 한인들에 대한 강제이주 결정은 전소련공산당 사할린주위원회와 사할

린주 내무인민위원부에 의해 이미 1937년 9월 말 내려져 있었습니다. 사할 린주로부터 뤼브노프 지구 239명, 서부 사할린 191명, 오히스크 390명 등 총 1,196명의 한인이 이주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프, 키로프 그리고 동부 사할린 지구에서는 322명이 강제이주당했습니다.

한인 이주민들은 장기간의 철도여행으로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이 주 중 사망자 숫자만 554명에 이르렀습니다. 한인들의 이주 여정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수많은 한인들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식사는 부실하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식수 부족, 의료서비스 부재 등이 극동으로부터의 이주 여정의 환경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이들은 바로 한 인 인텔리겐치아(교사, 출판사 종사자, 의료종사자, 사회복지분야 대표 등)였습니다.

1937년 10월 25일 극동으로부터의 한인 이주는 거의 종료되었습니다. 한인들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1만 9,453가구(7만 4,206명),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1만 8,461가구로 분산 이주되었습니다. 소련 내무부 장관인 예조 프가 소련 이민위원회의 의장 몰로토프에게 “현지에 76개의 열차가 그리고 도중에 48개의 열차가 도착한 후 짐을 풀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공식적인 관점 외에 학계에서는 강제이주 동기에 대해 다양한 견해와 관점이 존재합니다. M. N. 박 러시아 역사학자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 발 발 조짐이 보이자 이 전쟁에 맞설 준비가 안 된 소련은 대적인 독일, 일본 과 가까워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과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는 반일감정이 강한 한인들을 연해주에서 모조리 추방시 키는 것이었습니다(M. N. 박, 1997 : 31 재인용). 권희영은 강제이주는 한인 들을 극동에서부터 제거하려는 오래된 러시아 쇼비니즘의 발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권희영, 1996 : 69 재인용).

고송무는 강제이주의 다음과 같은 부차적인 이유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연해주 한인들은 연해주 소비에트화에 많은 공헌을 했을지라도 소

련당국은 한인들을 완전히 믿지 못했다. 그리고 밀집해서 살고 있던 한인 들이 언젠가는 자치구를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중앙아시아에 이주시킴으로써 한인들이 한곳에 모여 살지 않고 여 러 곳에 퍼져 주위의 많은 다른 민족과 섞여 살게 하자는 목적도 있었다. 또 이주지역을 택할 때는 가능한 한 극동에서 멀리 떨어지고 사람이 적게 사는 지역을 염두에 두었다.

셋째, 한인들이 연해주에서 벼농사에 성공하자 이를 더 크게 활용하는 목적도 있었다. 한인을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킴으로써 이 지역의 인력부족 문제도 해결되고 넓은 땅도 개척하고, 쌀도 생산하겠다는 목적도 있었다.

최근 발간되는 여러 글에서는 강제이주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작가인 우대국은 자신의 소설 '약혼반지'에서 다음과 같이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을 운송하는 모든 열차행렬은 화물열차였다. 열차 한 개 제대는 대략 50~60량의 화물칸으로 이루어졌다. 경찰과 내무부 호송인원들만 객차에 탔다. 화물칸에는 창문 하나 없었으며, 문만 있었을 뿐이다. 문이 닫히면 철책 같은 어둠뿐이었다. 그리고 밖에서는 이 열차로 가축을 나르는지 사람을 나르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래서 기차를 그냥 '검은 상자'라고 불렀다.” (보리스 박, 러시아에서의 140년간, p. 314, 재인용) 황승결 씨는 강제이주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쯤 우리 집으로 국가정치연합국 무장군인 2명이 탑승한 차량 한 대가 도착했다. 우리 집에는 7명의 아이들과 2명의 어른이 있었다. 어렵게 짐을 싣고 길을 떠났다. 저녁 8시경 철도역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말과 기타 대형가

축 운송용 화물열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차량은 사람을 나르기 위해 정비되어 있었다.” (보리스 박, 러시아에서의 140년간, p. 314 재인용)

5.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생활여건 구축

1937년 9~10월 한인 이주민 그룹이 하나씩 뒤를 이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예정된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약속한 모든 명령이 정확한 일정표대로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이미 새로운 거주지에 도착한 한인들을 여기저기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라는 명령 같은 혼란이 원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련 인민위원회의 부위원장 추바로에 의해 “한인 이주민 중 500가구의 어민들을 스탈린그라드주 아스트라한 지구로 이주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명령은 명령실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기 전 실행되었고, 이 예산은 당연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전달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한인들이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도움이나 동일목적의 위한 예산 없이 새로운 주거지에서,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현지 소련 인민위원회의, 소련 내무인민 위원부, 토지인민위원부, 소련 재정인민위원부, 소련 '농업은행' 등지로부터 모스크바로 발송한 보고서들은 전부 허위보고였습니다. 물론 극동에서 한인 이주민들이

남기고 온 기구 및 재산에 대해 약속한 금전적 보상 지급 도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해주에서 출발한 첫 열차가 9월 말 카자흐스탄, 10월 초 우즈베키스탄 에 도착했습니다. 이주자 수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30~40배 많았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1938년 12월 1일자로 카 자흐스탄에 1만 8,461가구의 한인 이주했다고 보고했습니다. <

표 2>에서는 한인 이주민 들의 정착지역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2> 한인 이주민들의 카자흐스탄 정착지역 상황

	한인 ㉠주민들의 정착지역	한인 가구 수
1	알마티 주	4,191
2	크질오르다 주	7,613
3	카라간다 주	1,225
4	악튜빈스크 주	758
5	쿠스타나㉠ 주	1,040
6	구리에브 주	1,075
7	카자흐스탄 북부지역	778
8	카자흐스탄 서부지역	512
9	카자흐스탄 남부지역	1,269
합계		18,461

우즈베키스탄 정부 보고에 의하면 한인 1만 9,453가구(약 7만 4,206명)가 도착하고 우즈베크 사람이 사는 농촌에 1만 946가구가 정착했습니다. <표 3>에서는 한인 이주민들의 정착지역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Ким Г.Н.1999). 그 외에 타슈켄트 시, 사마르칸트 시, 페르가나 시, 나만간 시, 안디잔 시, 코칸트 시, 부하라 시에 약 8,507가구 이상 배정되었습니다.

1938년 봄에는 고려인 집단농장이 형성되었습니다. 타슈켄트 주 치르치

크 강 하류에 6개 농장, 치르치크 강 중류에 13개 농장, 치르치크 강 상류에

4개 농장, 사마르칸트 주에 9개 농장, 페르가나 주에 5개 농장, 호레즘 주에

3개 농장, 카라칼파크자치국에 5개 농장입니다. 그리고 고려인 5,145가구는 우즈베크인이 사는 농촌에 배정되었습니다.

〈표 3〉 한인 이주민들의 우즈베키스탄 정착지역 상황

	한인 ㉠주민들의 정착지역	한인 가구 수
1	타슈켄트 주	6,557
2	사마르칸트 주	1,194
3	페르가나 주	1,130
4	호레즘 주	846
5	부하라 주	16
6	카라칼파크자치국	1,203
7	타슈켄트시, 사마르칸트시, 페르가나시, 나만간시, 안디잔시, 코칸트시, 부하라 시	8,507
합계		19,453

카자흐스탄의 경우 1938년 12월까지 고려인 집단농장이 형성되었습니다. 크질오르다 주 카잘린크 지역에 1개 농장, 카르막친스트 지역에 12개 농장, 테렌 우체크스크 지역에 2개 농장, 스프다린스크 지역에 7개 농장, 야느쿠르간스크 지역에 1개 농장, 칠리스크 지역에 3개 농장, 아탈스크 지역에 2개 농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알마아티 주에 19개 농장, 아르두빈스크 주에 4개 농장, 부카자흐스탄 주에 5개 농장, 남카자흐스탄 주에 4개 농장, 카라간다 주에 5개 농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고려인 강제이주사를 살펴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것은 강제이주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였습니다. 고송무¹⁾에 의하면 연해주에 있을 때 고려인 인구는 20만 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강제이주 과정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한 고려인은 18만 명입니다. 2만 5,000명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그중 만주로 넘어간 사람이 있고, 러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기차에서 사망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 보고자료에 의하면 1937년 고려인 운송 도중 사고가 나서 기차에 탄 수백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주로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이주 도중 많이 사망했습니다.

고려인 강제이주사를 살펴보면서 또 하나 궁금했던 문제는 강제이주 과정에서 한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고려인의 정체성은 한민족의 언어와 전통문화 문제일 것입니다. 박 보리스에 의하면 1930년대 중반까지 극동에 재소 한인들의 문화적 발전을 뒷받침할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즉, 극동지역에는 세계 최초의 한인사범학교, 한인극장, 한인학교가 운영되었고,

1) Ko Song Moo. Koreans in Soviet Central Asia. Helsinki, 1987, p. 17 재인용.

러시아어와 한글 신문이 발행되었습니다. 창작분야 종사자들의 예술적 경지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한인 교사진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한인 농학자 및 기타 주요 직업분야에 한인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강제이주라는 환경에서 가족을 위해 집을 마련하는 데 급급해 이전에 형성된 교육, 문화, 예술의 기초가 붕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련정부의 지원과 고려인들의 노력으로 한국어와 한인문화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교육부 고문서에 의하면 1938~1939학년도에 우즈베키스탄 전국에 96개의 한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중 초등학교 50개, 7년 과정 학교 32개,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은 14개였습니다. 총 학생 수는 2만 명이었습니다. 한국어가 필수과목이었고, 오늘날처럼 외국어로서 교육시키는 차원이 아니고 모국어로서 제1언어로 교육시켰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가 모든 교과목을 러시아어로 교육시키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그로써 고려인에게 있어 모국어는 쇠퇴하기 시작되었고, 더 나아가 문화와 정체성과 괴도 시작됩니다. 일본의 지배로부터 한반도가 광복하기까지 그 과정은 악화되어 갔습니다.

한반도가 광복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한글학교 회복에 대한 논의가 생겼습니다. 1947년 1월 16일 우즈베키스탄 공산당 지도부 회의에서 고려인 초등학교에서 모국어인 한국어로 교육하도록 결정하고 규정을 공포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력한 이유로 그 규정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필요한 교과서가 없었습니다. 둘째는 그 규정이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국어가 러시아어였고 자녀의 장래 때문에 러시아어를 공부하는 데 더 많이 집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우즈베키어 대신 한국어로 가르쳤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씩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어 교사를 도울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교육부에서 특별부서를 마련했습니다.

전국의 대다수 지역에서 고려인은 한국어를 교육받았습니다. 타슈켄트시, 타슈켄트 주뿐만 아니라 사마르칸트시, 사마르칸트주, 호레즘시, 호레즘주에서도 한국어를 교육했습니다. 한국어 교사들은 교육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1954년도에는 전국 한국어 교사를 위한 세미나를 실시했습니다. 그 세미나에 교사 29명이 참석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교사 중에는 훌륭하고 열정적인 교사가 많았습니다. 1955년도에는 레닌 기치(Ленин Кичи) 신문사가

한국어 교수 관련 자료집을 발행했습니다. 자료집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3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교과 과정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은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기록했습니다. 3장은 쓰기 연습과제 몇 종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은 사전을 통한 교육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할린에서 고려인을 위한 교과서가 편찬되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의 학생들도 그 교과서로 교육 할 수 있었습니다.

1965년도에는 3~11학년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3~4학년을 위한 한국어 교과서가 편찬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어 정규화를 하는 데 있어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한국어 교육이 쇠퇴하였습니다. 한국어 교사들은 교과서와 보충자료 없이 가르쳤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어 교사들은 한국어 교육을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1992년 우즈베키스탄-한국 간에 국교가 수립되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여러 곳에서 한국어를 다시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6. 결론을 대신하여

연해주에서 강제이주당한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많이 사망했고, 중앙아시아에 도착해서도 주거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환경에서 많은 고려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민족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피해를 많이 면할 수 있었습니다. 늘 들어온 것은 초기에 우즈베크 사람들의 도움으로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한국학과 김 게르만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카자흐인들과 우즈베크인들에게, 그들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형제와 같은 도움의 손길을 주었으며 우리와 함께 마지막 빵 조각도 나누었다는 것에 감사했던 것은 케케묵은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한인들의 정착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인과 우즈베크인들이 자신들도 어려웠던 그 시절에 한인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어려운 시절에 카자흐인과 우즈베크인의 도움으로 1937년 고려인 18만 명이 도착했으나 지금까지 발전하여 구소련 고려인 수는 60만 명에 달 합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소련 국민이었던 고려인들은 정체성 혼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즈베키스탄-한국 간 국교가 수립돼 한 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1. 고송무, 1990, “쏘련의 한인들 고려사람”, 이론과 실천.
2. 김을가 (2001), “카자흐스탄 한인들의 민족정체성과 언어문제 연구—1990년대 중 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3. 박 보리스 외(2004), “러시아에서의 140년간”, 시대정신.
4. 심헌용(2004), “고려인의 신이주와 NGO의 역할—연해주와 불고그라드”, 러시아 고려인 역사 140년.
5. 오성환 외(2001), “시간의 시련”, 시대정신. 임영상(2003),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사회 연구”, 다해.
6. 한 세르게이(1999), 고려사람, 우리는 누구인가”.